

국회도서관에 더해진 MZ의 감성 대학생 SNS 서포터즈



김지윤
국회도서관 대학생 SNS
서포터즈

국회도서관 대학생 SNS 서포터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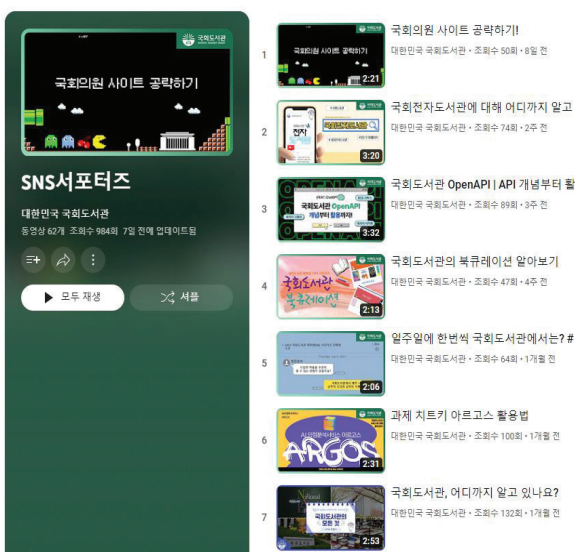
여러분도 한 번쯤은 국회도서관의 SNS를 본 적 있을 것이다. 국회도서관 SNS에는 현재 국회도서관 소식, 인터뷰, 서평 등이 올라오고 있다.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지는 국회도서관 SNS에 평소와 다른 형태로 국회도서관의 여러 모습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게시물이 종종 올라온다. 바로 국회도서관 대학생 SNS 서포터즈가 만드는 게시물이다. 우리 서포터즈들은 국회와 도서관이 주는 어쩔 수 없이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 대신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조금은 가볍고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시물들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국회도서관 대학생 SNS 서포터즈는 제6기로 12명의 대학생이 선발되어 활동 중이다. 지난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서포터즈는 다가올 10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콘텐츠 제작과 국회도서관 게시물 공유, 국회도서관의 홍보 방안 제안 등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국회도서관의 소식을 사방으로 전달하고 국회도서관의 SNS를 더욱 활성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포터즈는 3명이 한 팀으로 구성돼 유튜브 동영상,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을 제작한다. 필자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

올해 국회도서관 대학생 SNS 서포터즈는 제6기로 12명의 대학생이 선발되어 활동 중이다. 콘텐츠 제작과 국회도서관 게시물 공유, 국회도서관의 홍보 방안 제안 등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국회도서관의 소식을 사방으로 전달하고 국회도서관의 SNS를 더욱 활성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국회도서관 유튜브 채널 대학생 SNS 서포터즈 제작 영상

파란만장한 콘텐츠 작업 과정

한 달의 시작과 함께 제작할 콘텐츠를 계획한다. 팀 회의도 진행하는데 팀원마다 사는 지역이 달라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팀원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어떤 주제로 제작할지, 어떤 내용을 넣고 또 강조할지 이야기하다 보면 회의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 서로 다른 매체로 콘텐츠를 제작하기에 주제가 같더라도 세부적인 제작 포인트는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그렇게 회의를 바탕으로 콘텐츠 기획서를 완성하여 국회도서관에 제출하면 피드백이 돌아온다. 전달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주제 방향을 다른 쪽으로 틀어보거나, 표현 방법을 다시 고민한다. 서포터즈 담당자가 제공해 주는 추가 정보 참고해 본격적인 제작이 시작된다. 개인적으로는 별도로 제작하는 날을 정하고 하루 중 일 집중해 일을 처리하는 편이다. 그렇게 이 달의 콘텐츠가 완성된다.

7월 우리 팀이 제작하는 콘텐츠 주제는 국회도서관이 운영하는 '독도 홈페이지 소개'였다. 팀원 대부분이 국회도서관에서 다소 먼 곳에 살고 있다. 하지만 국회도서관 홈페이지는 국회도서관과 멀리 살던, 가까이 살던 상관 없이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료 확보에 문제가 없다. 때로는 국회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서 살펴보는 것보다 더욱 많은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다. 이처럼 국회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유용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콘텐츠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

영상 작업은 아이디어 구상, 제작, 수정, 제출이라는 간단하지만, 시간이 꽤 많이 드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평소 괜찮은 아이디어

국회도서관 홈페이지는 때로는 국회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서 살펴보는 것보다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처럼 국회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유용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콘텐츠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

가 있으면 언제 어디라도 바로 휴대폰 메모장을 켜 메모한다. “도입부 제목을 타자 치는 느낌으로 해볼까?”, “독도 사진은 어디에서 얻지?”, “조금 진지한 느낌일 테니 폰트를 굵고, 무거운 느낌으로 준비해야겠다”, “독도에 대한 소개, 홈페이지 안내, 홍보라는 흐름은 어떨까?” 등 다양한 생각과 흐름이 메모장에 기록된다. 사실 이번 달의 주제는 처음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았다. 사람들이 아예 모르는 것에 관해 설명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소개한다는 것은 역시 부담감으로 작용했다. 고민 끝에 그래도 쉽고 가벼운 접근을 위해 ‘지도를 확대해서 시선을 모아보자!’는 결정을 내리고 콘텐츠를 제작했다.

이번 영상 제작에서 가장 어렵고 시간을 많이 들였던 부분은 바로 독도 사진을 구하는 일이었다. 나름대로 검색을 잘한다고 자부했지만,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마음에 드는 고화질 사진을 찾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아, 그냥 내가 찍으러 가?”라는 무리한 생각도 잠시 했지만, 결국 수많은 독도



제6기 국회도서관 대학생 SNS 서포터즈 발대식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소개

관련 사이트를 뒤 잡듯이 뒤져 결국 해결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감일을 지키기 위해 아침부터 노트북 앞에 앉아 OBS studio(영상 녹화 프로그램)를 켜고 영상에 사용할 것 같은 화면들을 모조리 녹화한다. 그 후 프리미어 프로(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모은 자료들을 자르고 붙이며 영상을 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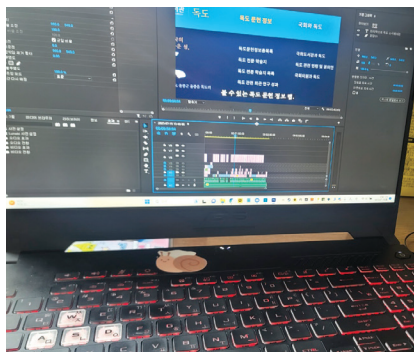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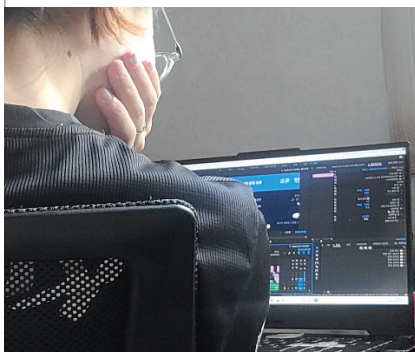
개인적으로 영상 편집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다. 그래서인지 영상 자체에 화려한 효과나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나름 프레임 단위로 긴 시간 편집하다 보면 어느새 영상도 조금씩 그럴싸한 모습을 갖춰간다. 컴퓨터 바탕화면에 널브러진 수많은 사진과 영상, 음악 등은 이번 작업이 얼마나 복잡한 작업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영상을 완성하기까지 꽤 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하는 편이다. 갑자기 노트북이 멈추거나, 저장 이 안 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꺼지기도 한다. 수많은 원본 사진과 영상을 정리하다 중요한 자료를 삭제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나 안 할래!”라는 말이 입 밖으로 터져 나오지만 참고 견디다 보면 어느새 영상이 완성된다.

작업이 끝난 최종본을 팀원들과 지인들에게 보여준다. 나름 정이든 영상이다 보니 객관적인 평가가 힘들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것 같아?” 질문하면 얼마 후 여러 피드백이 온다. “자막 속도가 빠른 것 같다”, “배경음악이 별로야”, “자막이랑 화면이랑 타이밍이 안 맞아” 등등 수많은 피드백을 통해 1차 수정이 진행된다. 그렇게 다시 만족할 때까지 수정을 거친 후 파일의 출처를 정리한 메모와 제작한 썸네일, 영상 설명 등을 포함해 제출하면 정신없는 콘텐츠 작업도 끝이 난다.

국회도서관의 서포터즈, 그 이름에 걸맞은 활동을 위하여

서포터즈 활동은 생각보다 더 어려운 도전이었다. 남들에게 영상을 보여준 적도 많이 없던 상황에서 국회도서관의 서포터즈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보는 영상을 제작하는 일이 꽤 부담스럽고, 너무 거대한 일로 느껴졌다. “잘해야지, 잘해야지.” 스스로 다독이며 조금이라도 완벽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영상을 수도 없이 돌아봤었다. 물론 혼자 재미 삼아 만들기 시작한 유튜브 영상으로 국회도서관 서포터즈가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개인 유튜브 채널이 아닌 국회도서관 유튜브 공식 채널에 내가 만든 영상이 올라가는 경험은 정말 소중한 경험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번 활동을 통해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정보들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깨달은 것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국회도서관의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제작 마감날 올라오는 다른 팀의 영상을 보며 더 잘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도 커졌다. 영상 제작은 만들면 만들수록 어려운 일인 것 같다. 계속해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고 싶어 열심히 자료조사와 공부도 병행하지만 결국 평범한 영상만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실망스러울 때도 많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노트북 한구석에 쌓여가는 영상을 볼 때마다 스스로 조금씩은 발전하는 것 같아 뿌듯하다. 이제 활동기간도 절반 정도 남았다. 우리 서포터즈 모두는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대학생 SNS 서포터즈 활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영상 편집 제작 과정